

사설

세계평화선언과 불교

모든 사람들, 나아가 모든 생명들이 복되고 평화롭게 사는 세계를 이루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원 종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교적 갈등까지 배제하여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다면, 종교들의 화합된 힘은 단번에 인류를 보다 높은 행복과 평화의 낙원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소박하고 거친 생각이지만, 8월29일 세계의 종교지도자 1천여명이 유엔에 모여 채택한 '세계평화선언'은 결국 이러한 소박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에 제일 앞장서서 손잡고 나아가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세계 종교에 대한 반성이고,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일으켜 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세계 종교인들의 큰 지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러한 흐름에 불교는 어디에 서 있으며, 또 한국불교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묻게 된다.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불교는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의 지도적 위치에 서야 마땅하다. 제시된 열 개의 이념 전체를 지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에 대한 현실적인 기여를 말한다면 불교는 선두 그룹에서 있다고 말

하기 힘들 것이다. 아직도 서양문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의 정세 때문인 점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계의 자각과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완전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돌이켜 한국불교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반성과 자각은 더더욱 절실하고도 뼈아픈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열 가지의 결의를 보면 전혀 새삼스러운 것도 없이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서도 늘 강조되어 오던 것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이념의 실현을 통해 평화로운 인류공동체의 구현에 앞장서는 불교로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던 우리 불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이 여전히 우리는 앞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불교계의 내부적 갈등으로 변명을 삼아서는 안된다. 아니 오히려 불교계가 내부적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은 이러한 불교의 큰 사명에 대한 자각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이다.

인류의 삶, 인류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불교로 거듭나려는 큰 자각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내년 회의를 한반도에서 열 예정이라는 소식을 우리 불교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채찍질로 삼아 한국불교의 큰 변신을 이룩하도록 하자.

승가고시 성과 얻으려면...

조계종에서는 지난 7월 '승가고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승가고시법을 시행·공포하였다. 승려의 직적 향상과 법계에 의한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승가고시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잠깐 시행되어 서산, 사명과 같은 대 선지식을 배출한 체계가 되었다. 이번 조계종에서의 승가고시제도 실시는 많은 불자들이 하여금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갖게 하여 승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승가고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계는 5급(사미·사미니), 4급(비구·비구니), 3급(중역 법계)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5급은 행자에서 사미·사미니의 계를 받을 자격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교육원 수학과정을 겸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4급은 비구·비구니 계를 받을 자격기준을 겸정하는 것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 강원(지방 승가대학), 기초선원, 동계대, 승가대 등의 교육과정이나 수련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비구·비구니의 수계 요건이며, 승려

로서의 자격이 비로소 인정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다만, 3급 고시가 비구·비구니 구속계종수 후 10년 이상의 수행을 거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첫 시행에 있어서 스님들의 동참 의식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교과목이 지정되어 일정한 수준을 요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겠지만, 수행에 따른 조형 점수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형이란 수행에 대한 지계와 소입 수행에 있어서의 성과 내지 대중생활에서의 화합성 등 올바른 승가상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조계종은 그 동안 신도와 국민들에게 비취진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일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종단에서도 승가고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에서 모처럼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는데 대한 불자들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용단에 합장·찬탄 드림으로써 이를 계기로 승단의 청정가풍 회복과 수행풍토 조성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법률' 입법예고... 불교방송 수입감소 불보듯

"세금감면 등 종교방송 보호책 필요"

포교프로 강화 청취율 높여야 "광고유치-후원금 확보가 최선"

자율 경쟁체제를 알리는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불교방송의 광고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8월 23일 한국방송공사와 민영미디어랩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대행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이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 11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교방송의 자구책 마련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새로 개정되는 방송광고법에서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방송사에 광고가 배정되기 때문에 공영과 민영이 어려운 중 어느 곳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불교방송의 광고수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불교방송의 7월 광고 수입을 살펴보면 SBS 라디오(AM, FM)의 13억원과 대등한 12억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렸다. 이 수치는 창사 이래 최대의 광고 수입이다.

방송광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들어서면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 자구책의 일환으로 현재 각 방송사에서 내고 있는 14%의 광고수수료와 5.5%의 방송발전기금을 합한 19.5%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보호장치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KBS와 EBS는 상업방송과 구별되는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5.5%의 방송발전기금을 3.3%로 낮춰주고 있다.

이제 자율경쟁 시장을 예고하는 새 방송광고법에서 불교방송이 국민의 건강강한 정서를 위해 포교하는 종교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광고시장은 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ABCO)가 독점해 왔으나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3월13일 새로 발표된 방송법에 근거해 문화관광부가 이번에 현행 한국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양대 미디어랩 설립 등에 관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했다. 불교방송도 현재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수에 따라 광고액이 결정돼 왔으며, 특히 상업방송인 SBS와 함께 파키지로 묶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의 광고영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 방송광고법 시행하에서는 SBS의 광고 수주가 늘어나면 자연히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도 함께 증가해

왔다. 실제로 불교방송의 7월 광고 수입을 살펴보면 SBS 라디오(AM, FM)의 13억원과 대등한 12억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렸다. 이 수치는 창사 이래 최대의 광고 수입이다.

방송광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들어서면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 자구책의 일환으로 현재 각 방송사에서 내고 있는 14%의 광고수수료와 5.5%의 방송발전기금을 합한 19.5%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보호장치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KBS와 EBS는 상업방송과 구별되는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5.5%의 방송발전기금을 3.3%로 낮춰주고 있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자율경쟁하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고 수입이 격감될 수 밖에 없다"며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3사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광고 수입 격감을 막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로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광고로 충당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광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버터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불교방송이 생각할 수 있는 자구책은 종교방송으로서 독특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의 강화다. 상업방송에서 주를 이루는 오락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불교문화와 불교 교리강화, 신명상담, 콘서트 초청, 법륜 등 불교방송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포교 장르를 대폭 강화해 청취율 고양을 통한 위상 정립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히 광고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고 광고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방송광고영



8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김종을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과장이 대체 입법안 제정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방송광고 대체입법 공청회 열려 "방송시간 이해상충 법시행 시간 걸릴 것"

이번 입법예고안이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방송과 신문 등 국내 광고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방송광고업계는 민영미디어랩의 정식 출범으로 방송 단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광고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관광부가 8월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양대 미디어랩을 동시에 운영했던 프랑스의 경

우 광고시장 점유율에서 방송광고는 87년 26%에서 98년 40%로 크게 늘어난 반면, 신문부문은 33%에서 2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정부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새 방송광고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학계를 비롯한 각 방송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본회의의 상정과 법 시행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은 향후 1~2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을 담당할 직원을 현재 2명에서 2~3배 정도 늘려 광고영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후원회 활성화로 고정적인 소액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총무원 재무부의 한 소임자가 거액을 불법인출했다가 재입금한 사건이 발생. 조계종 총무원 회계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총무원의 전·현직 소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재무부에 근무했던 C씨가 지난 4월 총무원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을 불법 인출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3일만에 재입금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건 당사자가 최근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으로 7월 초 구속된 직후 실시한 총무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다량히 총무원의 재정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가총무원은 거래 금융기관의 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 인출했으며, 액수는 정확히 밝혀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총무원 재무부에 근무했던 한 스님은 "믿고 일을 시킨 것이다"며 경리 사고를 막을 장치가 없음을 시인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총무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 일부 사실만 확인해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다른 유용은 없었는지, 재정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경리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리사고를 방지하고,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자체 및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조계종 돈관리 문제없나

지지 않고 있지만, 2~3억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한 경리 사고이다. 그러나 불법인출 사실이 사건 발생 1달만에 밝혀지는 등 총무원 재정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이 없었으면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과장급 직원이 적지 않은 액수를 관리자도 모르게 불법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점도 문제다. 통장과 도장을 재무담당 부서의 부·국장이 분리해서

관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총무원 재무부에 근무했던 한 스님은 "믿고 일을 시킨 것이다"며 경리 사고를 막을 장치가 없음을 시인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총무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 일부 사실만 확인해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다른 유용은 없었는지, 재정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경리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리사고를 방지하고,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자체 및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綿히 이어온 어산(법배)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1학년-기본발성연습,복합계,도량계,거불,현좌계,바라 및 승무기초 2학년-각종,상단,중단,하단,시식,바라,승무,영산계 시행, 4세
· 습의과 : 일용의식 - 도량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육, 시다림, 정안, 방생 등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법배,작법) : 2년(4학기)
· 습의과(불전의식) : 6개월

*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2000학년도 하반기 시간표			
요일/과목	어산(어산) 과목(법배, 작법)	요일/과목	습의(법배) 과목(불전의식)
화	18:00-19:30(학교강의실)	수	19:00-20:30(학교강의실)
금	18:00-19:30(학교강의실)	목	19:00-20:30(학교강의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7-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2층)
Tel. 02) 921-3425 Fax. 921-1910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심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탐영제 방생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때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